

삼정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1
DECEMBER

•
Vol.227



2021년
수고했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cover story

수고했어요, 2021년 한 해도! 더욱 빛날 2022년을 기대하며

“오늘이란 평범한 날이지만
미래로 통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야.”
- 애니메이션 ‘업(Up)’ 中

어느덧 2021년을 보내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맘때쯤이면 1년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은 2021년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쉬움보다 보람을, 슬픔보다 행복을 느끼며
스스로 만족하는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1년을 충실히 보내온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했습니다.

추운 겨울, 마음에는 온기가 가득하길 바라며,
Good-Bye 2021 & Happy New Year!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04 2021 Top News

삼정인이 직접 뽑은 '2021 Top News'는?

08 Emerging Trends

KPMG 글로벌 최초 '탄소중립 준비지수' 발표, ESG 경영 시사점은?

10 Team Story

No.1 관세 컨설팅 파트너, KPMG 관세팀

12 Client+

K-바이오 위상 떨치는
체외진단 전문기업, 프리시전바이오

14 Market Reader

코로나와의 공존과 기업의 생존:
적응과 진화의 시대, 기업의 선택은?

16 Expert's Advice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HR 뉴노멀은?

17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19 KPMG Story

오늘의 나를 성장시키는 힘은 무엇인가요?

20 삼정별그림

Good-Bye 2021!
올 한 해, 삼정인 어떻게 보냈을까?

22 삼정인터뷰

아름다운 우리, 파란행복
파란행복 근로자를 만나다!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26 心 Care

내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기,
'마음챙김'

28 Samjong News

삼정KPMG, WCD Korea와 손잡고
'WCD 사외이사 교육과정' 론칭 외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삼정인이 직접 뽑은 ‘2021 Top News’는? 최다 표를 얻은 뉴스 Top 10!

2021년의 끝자락에 다다른 지금, ‘Channel’에서는 삼정KPMG의 올해 주요 뉴스를 살펴보려 한다.
올해는 특별히 삼정KPMG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뉴스 투표하기’ 이벤트를 열고,
법인의 주요 소식을 되돌아봤다. 삼정인들은 어떤 소식을 ‘Top News’로 뽑았을까?
지금부터 삼정인들이 뽑은 ‘Top News’와 함께 삼정KPMG의 2021년의 여정을 되짚어본다.





2021 TOP NEWS



1

최고의 인재를 존중하는 업계 최고의 보상! '연봉 인상' 및 '중간 성과급 제도' 도입

법인 구성원들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최고 수준으로 연봉을 인상했으며, 연 2회 중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업계 최고의 보상 정책을 시행했다.

2 자랑스러운 'Vision 2020' 성취 & 새로운 도전 'Vision 2025' 선포

균형 있고 높은 성장으로 재무목표 초과 달성하며 'Vision 2020'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과 자신감으로 'FY2021 사업전략 발표회'에서 'Vision 2025'를 선포하며 희망찬 도전에 나섰다.



3 MZ세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No.1 Employer of Choice: 7년 연속 최다 채용

2021 신입 회계사 390명을 가족으로 맞이했다. 입사자 중에는 2021 수석(최고득점), 최연소 합격자가 소속됐으며, MZ세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법인으로 7년 연속 신입 회계사를 최다 채용했다. 2021 컨설턴트도 60여 명을 공개 채용했다.





4 적극적인 의견 청취 위한 '행복한 일터 협의회 운영' 및 '복장 자율화'



분기별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행복한 일터 협의회'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자유로운 근무복장 제도'를 전면 시행했으며, 복장 자율화를 통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했다.

5 ESG 컨설팅 시장 석권 & SRI 채권 우수평가 기관 선정

S K그룹, 롯데그룹, KDB, NH금융, 네이버 컨설팅 제공 등 ESG 시장을 주도해왔다. 이외에도, ESG 온라인 교육 영상, ESG 가이드북 발간, ESG 외부 강연 등으로 ESG 변화를 선도해왔다.

지난 6월 15일에는 한국거래소가 주관한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 개설 1주년 기념식'에서 사회책임투자(SRI)채권 우수평가 기관에 선정됐다.



6 명실상부 M&A 자문 리그테이블 최강자

올해는 M&A 자문 리그테이블 최강자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 해였다.

지난 1월 21일, '제 18회 대한민국 IB 대상'에서 '최우수 회계자문'을 수상했으며, 1월 27일에는 '2021 League Table Awards'에서 'Best M&A Accounting Advisor'에 선정됐다.

또한, 2021 상반기 M&A 회계자문 1위 (한국경제, 매일경제 레이더M), 2021 3분기 자본시장 리그테이블 재무자문 부문 1위 (연합인포맥스) & 회계자문 부문 1위 (한국경제마켓사이트)를 기록했다.



7 몸과 마음의 건강 밸런스! '心 Care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心 Care'는 구성원들의 현재 심리 상태를 점검하고, 마음 건강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법인에 전문 심리 상담사가 상주하며, 1:1 심리 상담도 진행 중이다. 올해는 모든 승진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心 Care' 진단 기회를 제공했으며, 기존에 운영 중인 상담 역시 확대 전개하며 행복한 삶을 위해 삼성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졌다.

2021 TOP NEWS

8 2021 신입 회계사 대규모 온택트 교육 진행 ... 비대면 교육 강화로 스페셜리스트 양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전개했다. 대규모 온택트 교육으로 진행된 2021 신입 회계사, 승진자 교육을 비롯해 온라인 멘토링 등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으로 내부 교육 및 쌍방향 소통을 강화했다. 이처럼 다양한 온택트 교육을 통해 신뢰를 주며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Everyone A Leader' 양성에 힘써왔다.



9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론칭



지난 4월 13일,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및 회계실무자 등 다양한 업무 관련자들에 산업별,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삼정 KPMG 아카데미'를 론칭했다.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등 3가지의 정규교육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이외에도 법인 내 동영상, 발간물, 세미나 영상 등 모든 지식 콘텐츠를 일원화했다.

10 KCw 시대의 개막 ... 'KPMG Clara'로 고품질 회계감사 서비스 제공



업계 최초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감사 플랫폼 'KPMG Clara workflow'를 본격 도입하며, 고품질 회계감사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FY21 법인 총 감사시간의 40%, 약 290여 개 감사업무에 KCw/KAEG를 적용했으며, FY22에는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 감사본부원 최대 8일 KCw/KAEG 필수 교육 & 상시 Workshop 참여 등으로 KCw/KAEG로의 대변혁을 함께 이뤄가고 있다.

KPMG 글로벌 최초 ‘탄소중립 준비지수’ 발표, ESG 경영 시사점은?

지난 11월 KPMG는 글로벌 최초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별 역량을 평가한 ‘탄소중립 준비지수(Net Zero Readiness Index 2021)’를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NZRI 분석 결과를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비교하고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여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살펴본다.



탄소중립 준비지수(NZRI)란?

탄소중립 준비지수는 각국의 산업별 탈탄소화 진행 상황과 목표 달성 능력을 정량적인 수치로 환산한 값으로, 한마디로 탄소중립을 위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는 32개국의 탈탄소화 진행 상황을 비교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때, 분석 대상인 32개국은 G20 회원국 및 초청국뿐 아니라 신흥국, OPEC 회원국, 그 외 탄소중립 목표가 있는 국가들이 포함된다. 해당 국가들은 100개가 넘는 세부지표로 평가되었는데, 국가 준비점수와 산업 점수로 구분하여 도출했다. 먼저, 국가 준비점수는 각국의 탈탄소화 목표, 과거 탄소감축 성과,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과 환경에 따라 매겨지는데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한편, 산업 점수는 탄소배출이 가장 높은 5대 산업(전력 및 난방, 운송, 건물, 제조, 농업과 토지 이용 및 임업)에서의 탈탄소화 수준, 정부의 정책조치, 정책집행 역량 등으로 평가했다.

탄소중립 준비가 가장 잘 된 국가는 노르웨이, 한국은 전체 11위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 준비가 가장 잘 된 국가로 노르웨이가 선정됐고 이어서 영국(2위), 스웨덴(3위), 덴마크(4위) 등 주로 북유럽 국가가 상위권에 올랐다. 한국은 전체 11위를 차지했는데, 일본(7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 그린뉴딜 정책, 친환경 운송 수단 개발 및 수소경제 확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은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 발생하는 과제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韓, 운송 & 건물 부문 탄소중립 준비지수 상위권 랭크

산업별로는 먼저 전력 및 난방의 경우 친환경 기술이 진보한 덴마크가 선도하고 있으며, 영국 또한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이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에 대한 탈탄소화는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Mike Hayes(KPMG IMPACT 글로벌 기후 변화 및 탈탄소화 리더)는 “유럽 국가들은 향후 10~15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4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운송의 경우 전기차 확산율이 높은 노르웨이가 리딩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차량공유 시장이 급격히 확대된 중국(4위)과 한국(5위)도 상위권에 올랐다. 건물의 경우 국가별 친환경 건설 시장의 성숙도는 초기 수준이나 상위권에 오른 일본(2위)과 한국(3위)은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 관리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제조업의 경우, 일본이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고 노르웨이, 영국, 미국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포

탄소중립 준비지수(NZRI) 상위 25개국

1 노르웨이	2 영국	3 스웨덴	4 덴마크	5 독일
6 프랑스	7 일본	8 캐나다	9 뉴질랜드	10 이탈리아
11 한국	12 스페인	13 헝가리	14 미국	15 싱가포르
16 칠레	17 호주	18 브라질	19 폴란드	20 중국
21 말레이시아	22 아르헨티나	23 멕시코	24 터키	25 UAE

- 분석 대상인 32개국은 성과 기준 상위 25개국과 탈탄소화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7개국으로 분류됨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 1위로는 노르웨이가 선정
- 한국은 전체 11위를 차지하여 일본(7위)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함

Source: KPMG International, 삼정KPMG 경제연구원

집 및 저장 정책의 실행률이 낮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 토지 이용 및 임업의 경우 친환경 농업 기술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뉴질랜드가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싱가포르, 노르웨이,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농업과 식량 생산은 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새로운 재배 시스템, 폐기물 바이오 매스의 보다 광범위한 활용, 인공 배양 고기와 같은 육류 대체품을 포함한 분야에 높은 수준의 연구와 투자 유치가 진행 중인 한편,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 손실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유통업에서 식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목표 수립은 탄소중립을 향한 첫걸음일 뿐

분석 대상인 32개국이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3/4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한 국가가 9개국에 불과하여, 목표 수립 이후 단계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조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탄소중립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시장에서 기후 리스크 등 ESG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먼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면 투자자 및 은행의 의사결정에 기업의 기후변화 문제해결과 관련한 데이터 가용성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한편, 최근 투자자 및 은행은 투자 및 대출 결정에 기후 리스크 등 ESG 요소를 점점 더 반영하고

있으며 녹색 펀드, 기후 펀드 등 기후 관련 금융 상품도 등장하고 있다. 금융 시장에서 자본이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프로젝트에서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 민간, 금융 부문 간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탄소중립 준비지수 2021'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ESG 비즈니스 그룹 리더 이동석 부대표

Tel. 02-2112-7954

E-mail. dongseoklee@kr.kpmg.com

경제연구원 엄이슬 책임연구원

Tel. 02-2112-3918

E-mail. yeom@kr.kpmg.com

No.1 관세 컨설팅 파트너, KPMG 관세팀

최근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외 법인을 둔 기업들의 현지 법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내년에 한국이 참여하는 메가 FTA RCEP의 발효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어떠한 변화를 안겨줄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삼성KPMG 관세팀을 만나 다국적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보고,
관세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해외법인 관세통상 점검 및 전용 Web Portal 구축으로 기업 관리 Point 강화해야

코로나19 이후 물품의 이동 및 사람의 이동도 제한되고, 해외 소재의 생산법인들도 생산에 많은 한계를 겪고 있다. 각국의 해외법인(지사)에서 여러 통상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본사에서는 각국의 관세 이슈 및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외법인과 본사의 상호연결이 가능한 Web-Portal을 통해 통상 관세 이슈를 자유롭게 접근 및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은 니즈가 확대됐다. 기업들은 해외법인의 관세통상 점검 및 전용 Web-Portal 구축 시 관세 전문가를 통해 해외법인별 관세통상과 FTA를 점검하고 법인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선 추진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본사의 상시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일방적 방식이 아닌 본사와 해외법인 간의 상호 접근성을 확대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끌고, 잠재적 관세 통상 리스크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

Global FTA, RCEP 제도 활용으로 Tax Saving 꼼꼼히 챙겨야

내년에는 한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RCEP과 다수의 FTA 적용 시, 관세 철폐 및 인하 효과는 국내 기업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협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운영되기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협정을 적용해야 더 유리한지, 어떻게 하면 FTA 적용에 있어 편의성을 가지고 실무를 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최근에는 이미 적용받는 FTA 혜택에 대한 검증 역시 활발히 진행되기 때문에 협정별 절차나

형식, 실질적 판정결과에 꾸준한 관리도 필요하다.

삼성KPMG 관세팀은 기업들의 적용가능한 FTA 협정을 분석하고, Tax Saving 측면을 고려해 전체적인 FTA 등을 세팅한 후, 기업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IT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적용 FTA뿐만 아니라 해외법인 간의 거래구조별 FTA 적용 여부 및 리스크 검토, 본사와 글로벌 FTA 적용을 위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관세 A부터 Z까지, One Stop Total Solution 제공

삼성KPMG 관세팀은 국내 최대 관세 전문 컨설팅 조직으로, 지난 2020년부터 TP(Transfer Pricing)팀과 통합본부로 운영 중이다. 관세팀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146개국의 KPMG Global 네트워크를 활용한 각국의 관세 전문가와 협업 시너지 창출로 고객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관세팀은 그동안 해외 각국의 KPMG 관세 전문가와의 교류를 바탕으로 Global 해외법인의 관세통상 점검 및 전용 Web-Portal 구축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굴지의 대기업인 S사와 L사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로써 이 분야에서 독점적 위치에 서게 됐다.

또한 관세팀은 국내 회계법인 내 최초 설립된 관세법인으로 KPMG 내부의 IT 및 TP 전문가와 협업을 하고 있다. IT 전문가가 관세 측면에서 진단·분석한 데이터를 Web이나 SAP으로 구축하기도 하고, TP를 내국세(TP팀)와 관세(관세팀)측면에서 함께 분석해 제공할 수 있어 고객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고민할 필요 없이 One Stop Total Solutio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관세팀 주요 서비스 •



- 관세진단, 관세조사대리(종합심사, 정산 포함), 품목분류 관련 컨설팅, ACVA 등 관세평가 자문
- FTA 컨설팅(글로벌 FTA 포함)
- 관세환급 자문
- 불복 및 기타 자문
- 해외법인의 관세통상 점검 및 전용 Web Portal 구축 자문

Global 최대 관세 서비스 조력자될 것

삼정KPMG 관세팀은 국내 최대 관세 컨설팅 그룹으로, 고객의 국제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글로벌 니즈와 부합하여 글로벌 업무를 독보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관세시장에서는 가보지 않았던, 고객사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던 글로벌 관세 업무들을 같이 고민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팀은 향후 국내를 벗어나 세계 최대 관세 조력자로 거듭나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INTRODUCE

강길원 부대표
gilwonkang@kr.kpmg.com



“관세 관리의 필요성은 보호무역, 수입규제, FTA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글로벌 이전가격 관리, 공급망 관리 체계 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삼정 KPMG는 업계 선두로 글로벌 관세 관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왔으며, 관세와 TP 서비스의 통합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없었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태주 상무
taejookim@kr.kpmg.com



“관세팀은 지난 수년간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상품(해외법인관세 관리 포탈 구축 등)들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관세 서비스 조직이 될 것입니다.”

김현만 상무
hyeonmankim@kr.kpmg.com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성과 다수의 경쟁청구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및 관세자문 업계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정보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의약품 등 산업별 높은 이해도와 풍부한 관세자문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관세자문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삼정KPMG 관세팀은?



K-바이오 위상 떨치는 체외진단 전문기업, 프리시전바이오

프리시전바이오는 2009년 테라웨이브라는 사명으로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광학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됐다. 이후 고급 광학 기술 및 신호 알고리즘 기술을 선진 의료기기 분야에 응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체외진단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미국 현장진단 전문기업인 '나노디텍'과 전략적 합병을 진행하고 프리시전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2020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유럽에서 미국까지, 세상의 중심에서 진단을 외치다

2018년부터 프리시전바이어를 이끌고 있는 김한신 대표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마케팅을 경험하며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 먼저 기술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을 몸소 깨우쳤다고 한다. 이에 2019년 체코, 오스트리아 등에서 제품을 출시해 성능을 검증한 이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스위스, 독일 등으로 판매를 확대했으며 2021년 현재 연결매출 기준으로 유럽이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임상화학 제품도 출시와 동시에 유럽의 동물진단 글로벌 기업과 약 210억 원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며 유럽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프리시전바이오는 유럽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진단 시장인 미국 진출을 통한 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임상시험의 부담이 없는 동물용 진단 제품부터 출시하고 사람용 진단 제품은 현지 임상시험 및 FDA 인허가를 준비해 2023년 말 론칭하는 것이 목표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웰니스 케어: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프리시전바이오는 독자적인 형광면역기술인 TRF(Time-Resolved Fluorescence, 시분해 형광)를 활용한 'Exdia TRF Plus'를 시작으로 2020년 말 임상화학 제품 'Exdia PT10'(사람용)과 'Exdia PT10V'(동물용)를 출시했다. 현재는 3종류의 검사기와 사람용 진단 시약 22종 동물용 진단 시약 11종을 판매 중이다.

임상화학 제품은 종합 건강검진에서 보는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의 대사물질들을 동네 병원에서도 손쉽게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다. 대사물질들은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이용되는 항목들로 1~2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 경우 이미 수치가 나빠진 후에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Exdia PT10(V) 시리즈는 A4 용지보다 작은 footprint를 가지고 있고 10분 내 최대 17가지

의 대사물질을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은 중소형 병원에서 건강상태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한다.

Exdia PT10(V) 플랫폼은 사람뿐 아니라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의 건강 상태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물은 고통을 숨기는 본능이 있고 아픈 부위나 상태에 대한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단 기기를 사용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미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서양에서는 반려동물 진단 산업이 지속 건강 모니터링과 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 연계 판매 등의 통합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어 반려동물 진단 산업의 잠재 가치가 무궁무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혈액으로 뇌 질환을 진단하다

프리스전바이오는 스위스 뇌 질환 바이오마커 전문 기업인 ABCDx와 뇌졸중 및 외상성뇌손상 진단이 가능한 POCT(현장진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 중 뇌졸중 진단 제품 개발 프로젝트로 지난 6월 한국과 스위스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는 국제 공동연구 개발 프로그램인 '유로스타2'에 선정됐다.

뇌졸중은 한국인 사망원인 4위, 전 세계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旦 발생하면 사망까지 이를 위험이 크고 증상 발현 후 적절한 치료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회복된다 해도 많은 장애를 남기는 심각한 질환이다. 뇌졸중 치료는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뇌졸중의 타입에 따라 치료 방법이 상이한데 현재는 MRI, CT 스캔 등으로 원인을 체크하기 하기 위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프리스전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뇌졸중 진단 제품은 혈액검사를 통해 15분 만에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앰불런스 등에 탑재될 시 응급실 도착 전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어 환자 치료

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장 이후, 사회환원을 위한 노력 지속

프리스전바이오는 지난 8월 본사가 위치한 대전시의 요양병원 등 전염병 취약시설에 'Exdia TRF Plus' 검사기와 코로나19 신속항원진단키트 'Exdia COVID-19 Ag'를 기탁했다. 요양시설 내 노인들의 경우 면역력 부족으로 백신효과가 낮고 중증환자 전환율과 치사율이 높아 주기적인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집단 감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프리스전바이오에서 기증한 제품은 검사기를 이용해 코로나 항원 농도를 측정하고 기준 농도에 따라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제품으로 스위스 보건당국에서 로잔대학교를 통해 진행한 성능 평가에서 글로벌 선진사 제품 대비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이번에 설치된 'Exdia TRF Plus'의 경우 코로나 제품을 포함해 총 17종의 카트리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프리스전바이오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회수하지 않고 요양시설에서 지속 이용이 가능하게 해 향후 해당 시설에서 흉통 등 응급 환자 발생 시 Tnl, NT-proBNP, D-Dimer 등 심혈관 질환 검사 제품을 이용해 노인 건강 및 질환 모니터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대전에 위치한 프리스전바이오 회사 전경
2. 프리스전바이오는 대전시의 요양병원 등 전염병 취약시설에 'Exdia TRF Plus' 검사기와 'Exdia COVID-19 Ag'를 기탁했다.
3. 'Exdia COVID-19 Ag'
4. 'Exdia PT10V'
5. 'Exdia TRF Plus' 검사기



5



2



3



4

코로나와의 공존과 기업의 생존: 적응과 진화의 시대, 기업의 선택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 기업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번 <Market Reader>에서는
MRCC(Market·Regulation·
Competition·Customer) 프레임을
활용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위드 코로나 시대, 경기 회복 가능할까?

2021년 글로벌 경제는 백신 접종 가속화와 경제회복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또한 위드 코로나인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가 1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회복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코로나19 극복 과정 중 시행된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과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 대비 원자재, 물류 등의 공급 회복이 지연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 유동성 회수 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신흥국 등이 선제적으로 기준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지난 11월 3일 미국 연준은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위드 코로나 시대, 적응을 넘어 진화까지 모색하는 기업을 위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MRCC(Market·Regulation·Competition·Customer) 프레임을 통해 살펴봤다.

시장 환경 및 규제 변화, 디지털 혁신 가속화·디지털세·탄소국경세 도입 등

첫 번째, 시장 환경(Market)이 크게 변화했다. 언택트 소비 수요 증가로 오프라인 채널이 위기를 맞으면서,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시장에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신생기업들의 속도 전쟁이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존 유통·금융기업도 더욱 편리하고 빠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두 번째, 디지털 경제를 통한 팬데믹 위기 극복과 경제 재건 등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규제 및 정책

(Regulation)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주요국이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육성을 도모함에 따라 기업 체질 재편 필요성도 증가했다. 이외에도 2023년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과 더불어 2026년 일부 수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 도입 등이 본격 논의 중임에 따라 세부 합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법적·세무적 이슈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도 요구된다.

빅블러 시대, 경쟁 구도 개편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세 번째, 경쟁 구도(Competition)가 변화하고 있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 간 협력적 경쟁 관계를 의미하는 ‘코퍼티션(Cooperation+Competition)’에서 나아가 산업, 국가, 기술, 기업 규모 등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누구와도 협업할 수 있다는 의미의 ‘하이퍼 코퍼티션(Hyper Coopetition)’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영 전략으로 부상 중이다. 다양한 디지털 테크가 결합되며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섹터를 넘나드는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으며, 기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강력한 경쟁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등 무한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발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고객 행동(Customer)도 크게 변화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자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기업은 전방위적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도전에 직면했다. 국내외 기업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략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있으며, 위기 속 신규 사업 기회 모색 등 위기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마련하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코로나와의 공존과 기업의 생존’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O N T A C T U S

경제연구원 박도휘 수석연구원

Tel. 02-2112-0904

E-mail. dohwipark@kr.kpmg.com

위드 코로나 시대 발생 가능 이슈와 대응 전략

발생 가능 이슈	 Market 바뀐 것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	 Regulation 새로운 정책, 디지털과 그린	 Competition 빅블러와 하이퍼 코퍼티션	 Customer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돌아올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소비의 활성화로 기업들의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시장 진출 가속화 기업들은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더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속도 경쟁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제적인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대응 미비 시 기업 경쟁력 약화 다국적 기업·수출 기업의 전방위적 세(稅) 부담 증가 및 사업 불확실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 간의 영역 붕괴로 인해 기존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다수 경쟁자 및 신규 경쟁자(New Entrant) 직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 가능성 높아짐 새로운 산업에 진출 시 수반되는 리스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게중심이 이동 온·오프라인 사업환경 변화 위기 속 뉴비즈니스 요소 개발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 모색 필요성 증대
대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니즈 변화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고객중심적 경영 전략 수립 자사가 보유한 기존 역량과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통해 판매 채널 및 서비스·제품 다변화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사적 차원의 디지털·그린 전환 전략 마련 및 관련 신사업 투자 강화 무역장벽을 고려한 새로운 해외진출 전략 준비 및 기업별 Contingency Plan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이종 산업 간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다양한 주체와 상생 관계 구축 사내 벤처 제도 및 외부 혁신 생태계와 협력할 수 있는 기업 벤처링 구축(CVC 설립, VC 협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형 유통(RaaS, Retail as a Service) 개발 등을 통해 고객 접점 강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온라인 고객경험 제고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HR 뉴노멀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으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주요 경영 분야 중 하나는 바로 '인사(HR)'다. 완전히 새로운 HR, 'HR 뉴노멀(New Normal)'이 거론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하고 있는 'HR 뉴노멀'의 핵심 변화 방향은 무엇일까? 삼정KPMG HR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Q1 코로나19가 촉발한 'HR 뉴노멀'의 핵심 변화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관점과 방식의 공급망 재편과 판매 방법 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HR 뉴노멀은 본국 주재원에 의존하던 해외법인 관리를 현지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의 고용유지 압력이 매우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팩토리로의 전환, 온라인 플랫폼, 채널 등 비대면 방식의 판매채널 비중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엔지니어, 인공지능 전문인력, 데이터 분석가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인재 관련 최우선 투자영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대면 활동은 결국 디지털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기업들은 전문 디지털 역량을 가진 인재를 적극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인재 확보 및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나아가 디지털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도 일정 수준의 디지털 이해도(Digital Literacy)를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HR 뉴노멀' 대응을 위해 인사 담당자들이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요?

새로운 전문 역량과 아이디어로 이전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뉴컬러(New Color)' 인재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연구개발,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 영입은 과거 공채나 대규모 선발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들

의 재능과 역량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존 스타트업 생태계, 각종 전문 교육기관, 혹은 관련 전문가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경쟁을 통해 검증된 인재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컬러 인재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 방식보다는 프로젝트 기반 업적평가와 동료 평가가 더 유용하며, 보상에 있어서도 많은 새로운 시도가 예상됩니다. 결국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만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한층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분석과 의사결정이 자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Q3 코로나 사태로 부상한 핵심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조직 내부 구성원들에만 효과적인 리더십의 시대는 가고, 언제 어디든 어느 조직에 있던 다양한 전문성을 잘 조합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원격 리더십이 핵심적 리더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새로운 리더들은 위기극복과 비용절감만 강조하기 보다는 ▲미래비전과 이를 위한 준비 ▲구성원과 조직역량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정비 ▲과학적·디지털화된 의사결정 ▲개개인의 성장욕구와 이를 향한 에너지 및 동기부여에 집중하며 구성원들을 리드해야 합니다.



HR 컨설팅 리더 박형철 부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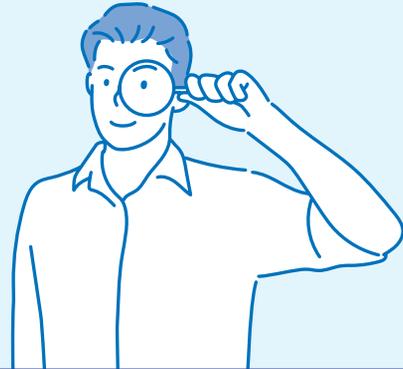
Tel. 02-2112-0990

E-mail. hyungchulpark@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9월 6일 게재된 한경 CFO Insight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펼쳐질 HR 뉴노멀' 기고문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새롭게 탄생한 시사, 경제 용어 및 신조어를 살펴보는 <맛있는 경제>. 이번 호에서는 초대형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용어와 새로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지칭하는 신조어를 짚어본다. 이와 함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자산매입 축소계획도 살펴본다.

헥토콘 (Hectocorn)

기업 가치가 1천억 달러(약 100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한다. 유니콘 기업이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었다면, 헥토콘은 이 유니콘 기업의 100배 규모라 하여 숫자 100을 의미하는 접두사 '헥토(hecto)'를 붙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초대형 스타트업이 등장하며 새로운 용어들이 생겨났고, 상상 속에 존재할 법한 훌륭한 기업이라는 의미의 유니콘, 10을 뜻하는 데카(Deca)와 유니콘을 합성해 10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을 데카콘(Decacorn), 1천억 달러 이상이면 헥토콘이라 부르게 됐다. 국내 데카콘 기업은 쿠팡, 야놀자, 그리고 최근 투자 1천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자 두나무 등이다. 한편, 전 세계 최초 헥토콘 기업은 틱톡 등의 개발·운영사인 중국의 벤처기업 바이트댄스이며, 최근에는 미국 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120조 원의 기업 가치로 헥토콘에 이름을 올렸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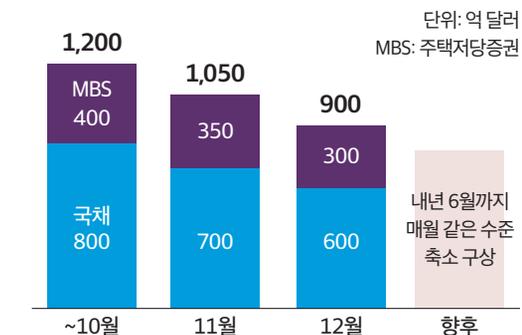
MAMAA (메타·애플·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

2013년 미국 대표 빅테크 기업을 나타내는 신조어 'FAANG'을 만든 짐 크레이머 CNBC 매드머니 진행자가 지난 10월 29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신조어를 공개했다. 바로 'MAMAA'다. 'MAMAA'에는 기존 'FAANG'에서 넷플릭스(N)가 빠지는 대신 마이크로소프트(M)가 합류했다. 페이스북(F)은 새 사명인 메타(M)로, 구글(G)은 모기업인 알파벳(A)으로 변경됐다. 미국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올해 'MAMAA' 5개 기업들의 총매출액은 1조3980억 달러로 추산된다. 지난해 1조1020억 달러보다 26.9% 많은 수준이다. 이 추산이 맞는다면, 올해가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연준, 채권 등 자산매입 축소 시작 ... 11월, 12월에 각각 150억 달러 축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1월 3일(현지 시간), 이달부터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연준의 목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고려해 월간 순자산 매입을 국채는 1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은 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장기금리 억제와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매달 미국 국채 800억 달러와 MBS 400억 달러 등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다만, 연준은 우선 11월과 12월에 각각 150억 달러의 채권 매입을 감소시키겠다고 밝히며, 경제 전망 변화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연준이 오는 2022년에도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 축소를 지속하면 8개월 뒤인 2022년 6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 자산매입 축소 계획



Source: 미국연방준비제도(Fed)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KPMG Story

오늘의 나를 성장시키는 힘은 무엇인가요?

삼정별그램

Good-Bye 2021!

올 한 해, 삼정인 어떻게 보냈을까?

삼정인인터뷰

아름다운 우리, 파란행복
파란행복 근로자를 만나다!

이동규의 두줄칼럼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心 Care

내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기,
'마음챙김'

Samjong News

삼정KPMG, WCD Korea와 손잡고
'WCD 사외이사 교육과정' 론칭 外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오늘의 나를 성장시키는 힘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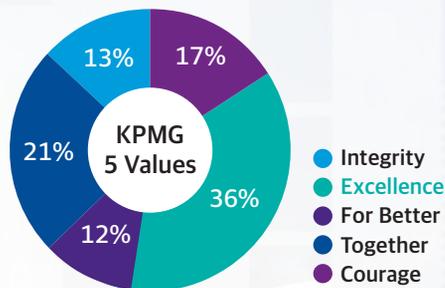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다. 1년을 지내오며 삼정인들을 한 뼘 더 성장시켜줬던 성장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이벤트를 통해 많은 삼정인들의 성장 동력을 들어볼 수 있었다. 삼정인들의 성장동력과 성장을 위해 추구해온 가치에 대해 들어보자.



나를 한 뼘 더 성장시키기 위해 추구해온 가치는?

'Excellence'

삼정인들은 성장을 위해 추구해오는 가치로 'Excellence'를 가장 많이 꼽았다. 'Excellence'가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어서 'Together' 21%, 'Courage' 17%, 'Integrity' 13%, 'For Better' 12%를 기록했다.



*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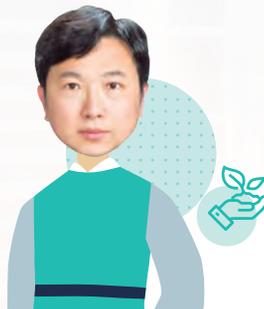
이태윤 Senior (CM2)

성장의 힘은 '자아비판'과 '부족함에 대한 인지능력'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부족함에 대한 인지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기비판의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감사인으로서 법적으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자본주의가 지탱하는 사회(For Better)를 위해 올바른 일(Integrity)을 해야 합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지하면, 향후 더 발전된 감사인이 되기 위한 행동(Excellence)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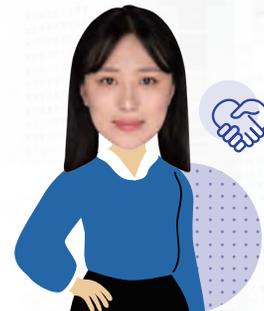
오상탁 Manager (Deal Advisory6)

저를 성장시키는 힘은 제 자신의 커리어 로드맵에 대입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이미지를 주입하고 인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미래 계획에 최대한 근접하기 위해서는 매일 제가 할 일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 동기부여 영상 시청을 통한 Mindset을 저 먼저 고취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서 가치를 실천할 계획입니다.



정기용 Director (MCS2)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후배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오늘의 저를 한 뼘 더 성장시킨 듯합니다. 앞으로도 이를 위해 스스로 늘 새로운 것을 찾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찾고, 이를 후배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물론, 후배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요.



이주연 Associate (Tax1)

후회 없는 2021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의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은 시간을 알차게 쓰기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퇴근 후 혹은 주말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운동을 하고, 가족, 친구들과 전시회나 공연을 보는 등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어요. 무엇보다 기말시즌을 대비해 틈틈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시즌 중에는 정신없이 놓치는 부분이 많을 거 같아, 미리 대비하고 있죠. 한 번에 많은 걸 쌓아 올리지 않고 한 단계 차근차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Good-Bye 2021!

올 한 해, 삼정인 어떻게 보냈을까?

어느덧 올해 달력을 한 장 남겨둔 12월이 왔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21년 삼정인은 어떻게 한 해를 보냈을까? Good-Bye 2021, 삼정인이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을 포착해본다.



부모님 환갑 기념으로 떠난 제주도 여행

이준학 Manager (Deal Advisory4)



올해 부모님 환갑을 맞이해 가족들과 아내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주도 여행 중 으뜸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다량쉬움을 올랐는데 경치, 날씨 모든 게 너무 예뻐서 그 순간이 기억에 강하게 남았네요. 취업한 후 부모님과 함께 긴 여행을 간 적이 없었는데 부모님 환갑을 맞이해 온 가족 모두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지난해 결혼을 했는데 이번 가족 여행에는 아내도 함께 할 수 있어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들 모시느라 고생했을 아내에게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코시국에 태어난 아들의 100일!

강기욱 Manager (RCS)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니,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 되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들의 100일을 기념해 가족이 모여 소소하게 축하를 나눴어요.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아들이 건강하고, 아주 무탈하게 잘 지내워서 더 기쁩니다!



이직 성공! 나도 삼정인이 된 날!

추대호 Senior (IT Audit)

올해 이직에 성공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무엇보다 삼정KPMG라는 경쟁력 있는 집단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었고, 자부심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삼정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삼정 KPMG 입사를 축하 드립니다!





**서로 힘이 되어주는
동기들과의 만남!**

지동준 Associate (CM2)



작년에 입사 후 동기 모임을 가질 때가 가장 기억이 남아요. 당시에는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서 21명 중

19명의 동기가 모여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어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3~4명씩 조를 나눠 만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경비 또한 지원을 해주셔서 좋은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사회초년생으로서 법인 생활이 쉽지만은 않은데, 동기들이 있어 서로 의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다 같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항상 서로 응원하고 팀즈 상으로 함께 공부도 하면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어요. 추후에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어서 다 같이 모임도 하고, 여행도 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CM2 FY20 입사 동기들 항상 파이팅입니다!!



첫 시즌 종료 후 떠난 가족 여행

이병웅 Associate (CM2)

신입으로 입사하고, 첫 번째 시즌이 종료된 후에 떠난 가족 휴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 경험한 시즌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을 때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이 너무나도 힐링이 되었습니다. 사진만 봐도 힐링 되지 않나요?



KPMG에서의 첫 시작, 그리고 첫 결혼기념일!



구민선 S.Analyst (Deal Advisory2)

2021년 11월에 시그니엘에서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기념하여 남편과 저녁 식사를 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1년 전 팬데믹 상황에서 신행을 취소하고 결혼식을 미루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올해 첫 결혼기념일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니, KPMG에서 새롭게 커리어를 시작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있어서, 신선생활을 모두 챙길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파란행복 파란행복 근로자를 만나다!

지난 2018년 삼성KPMG는 업계 최초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파란행복’을 개소했다. 파란행복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사내 카페, 인쇄, 헬스키퍼, 미화 등의 사업을 통해 함께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든 지금, ‘파란행복’ 근로자들의 법인 라이프를 들어본다.



구교석 직원 (인쇄팀)

“파란행복은 선생님 같은 존재,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어 기뻐요!”

저는 ‘파란행복’ 인쇄팀에서 근무 중인 구교석입니다. 전 직장이었던 ‘베어베터’를 통해 파란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입사 당시 두려움이 크기도 했지만, 새 직장에서 새롭게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있었어요. 현재 인쇄팀에서 책 제본과 재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예전 회사에서보다 제가 맡은 역할이 많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파란행복’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제 모습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제게 파란행복은 선생님입니다. 올바른 직장생활에 대해 한 단계씩 차근차근 알려주는 스승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새 업무를 배우고 직장 동료들과 대화도 나누며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가끔 업무가 많을 때는 바쁘기도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럽고 근면·성실한 삼성인이 될게요!



이미란 직원 (카페팀)

“파란행복은 놀이터! 함께 일하며 즐겁게 근무해요”

제가 ‘파란행복’에 입사한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성공빌딩 1층 파란행복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음료와 커피 제조를 담당하고 있어요. 커피를 좋아하고, 전 직장에서도 3년간 바리스타로 활동해왔던 경험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방문을 해주시는 삼성인들이 제 커피를 좋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파란행복’ 입사 후 조금 통장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직 후 더 많은 월급과 보너스 등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커피와 마음이 맞는 직장 동료, 친구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때문에 파란행복은 제게는 놀이터와 같습니다.

지금처럼 오래오래 즐겁고 재미있게 근무하고 싶어요. 카페에 오시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할 수 있는 멋진 바리스타(삼성인)가 될게요!

‘파란행복’이란?



‘파란행복’은 장애인 직원 44명, 비장애인 직원 8명으로 이뤄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카페팀, 인쇄팀, 행정지원팀, 미화팀, 헬스키퍼팀 총 5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서, 삼성KPMG는 2018년 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했다.



김만기 직원 (미화팀)

“내게 큰 즐거움! 매일 매일이 행복해요”

저는 2020년 5월에 ‘파란행복’ 미화팀에 입사했어요. 성수동에서 4년을 일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송파 장애인지원센터의 추천으로 ‘파란행복’에 면접을 볼 수 있었어요. 당시, 크고 멋진 건물을 보고, 떨리고 설렘했습니다.

저는 입사 후, 매일 아침 법인 내 사무실을 소독하고 있어요. 전체를 소독한 후에는 스마트오피스 8층의 미화를 담당하고 있어요. 처음 출근하고 적응할 때는 많이 어려웠지만,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매일 하는 업무가 즐겁고 기쁩니다. 그래서 파란행복은 제게 ‘큰 즐거움’입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100세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삼정인이 되겠습니다.



mini interview 김다운 직원 (미화1팀/ 비장애인 근로자)

“최선을 다하는 파란행복 직원들, 앞으로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Q.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부분을 신경 쓰시나요?

“직원들과의 라포 형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친밀감이 생성되면 직원들도 편하고 숨기는 것 없이 말씀해 주셔서 업무에 필요한 정보와 놓치기 쉬운 특성, 습관들을 알아챌 수 있어서 업무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직원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대화하면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업무 진행이 되기에 항상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지요.”

*라포 형성: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 관계를 의미함.

Q. 어떤 방식으로 직무 지도를 해주시나요?

“경직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업무를 습득하도록 유도해요. 머리로 기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스케줄 전체를 통으로 몸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어려운 부분은 무한히 반복하여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도록 이끌고 있어요. 모두 잘 따라와 주셔서 항상 감사하지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기존 직원들과 신규 입사하는 직원들의 회사 적응과 직무 지도를 위해 사진으로 구성된 직원용 업무 매뉴얼 및 교육용 책자를 제작하고 싶어요.”

Q.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업무 훈련 중 문제 행동이 있거나,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한 직원분이 결국에는 행동이 수정되어 업무를 거뜬히 잘 수행했을 때, 또 적응을 너무 잘해서 회사 출근이 즐겁다며 회사가 너무 좋다고 말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끝으로 삼정인에게 한 마디!

“우리 ‘파란행복’ 직원들 모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도 너그러운 시선으로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행복의 관건이 아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막상 “당신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알고 보면 행복은 의외로 단순하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Anna Karenina)>의 첫 문장을 보라.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행복(happiness)이란 단어는 본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뜻을 가진 ‘happen’에서 나온 말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했다는 거다. ‘hap, mishap, happening’ 등도 연관된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hap’은 우연이나 운이라는 뜻이다.

한자로는 행(幸)과 복(福)이 합쳐진 말이다. 우선 ‘행(幸)’은 본래 수갑을 그린 상형문자로서, 執(손을 묶인 채 꿇어앉아 있는 모습), 報(사람을 형틀 앞에 꿇어앉힌 모습) 등이 그 예다. 따라서 ‘행운(幸運)’이란 결국 죄를 받던 상태에서 풀려나는 좋은 운이란 뜻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현실에서 자주 쓰는 행운은 대개는 요행(luck)을 의미한다. 그러나 요행은 내 것이 아니다. 우연히 대가 없이 얻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행복학의 선도는 하버드대학이다. 행복학에서 내린 가장 중요한 결론은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람, 즉 '인간관계(human relationship)'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한 지역 공동체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또한 분명하다. 행복한 사람들 주변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유유상종(類類相從), 근묵자흑(近墨者黑)의 원리다.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는 말이 와 닿는 이유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더욱 좋은 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전염시키는 일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볼 때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이란 일종의 계류이다. 만약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난 어찌해야 하는가? 이런 난처한 질문에 대해 유명한 행동 변화 컨설턴트인 위맥 부부는 <의욕의 기술>에서 '진짜 문제는 당신의 일과 삶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대개 나쁘지 않으면 기존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는 그럭저럭으로 이어지게 되고 위대한 인생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

행복을 불러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명상이다. 이 두 가지는 이른바 기적(奇蹟)의 원료인 셈이다.

"대부분 처음에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인 줄로 생각한다. 그러나 점점 더 그윽한 경지에 이르면 기도는 결국 듣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키에르케고르의 말이다.

결국 기도(祈禱)는 자신을 들여다보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명상(冥想)은 어두운 곳에서 자신의 깊은 내면과의 만남이다. 특히 명상(meditation)이란 말은 약(medicine)과 그 뿌리가 같다. 명상을 하는 것은 영혼 안에 좋은 약을 집어넣는 것이며, 좋은 씨를 내면에 뿌리는 것과 같다.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철학자 칸트가 말한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저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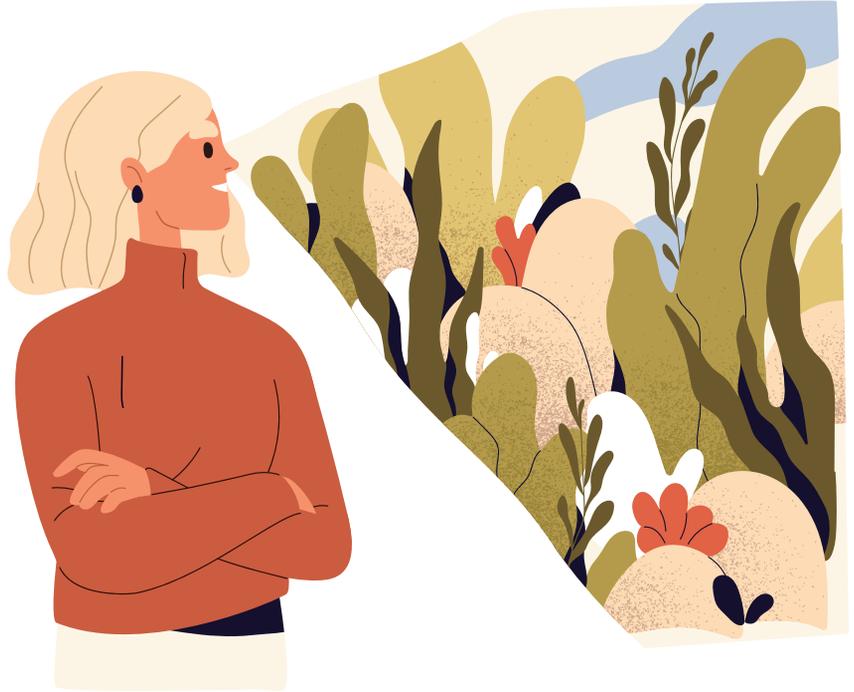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동규 교수는 국내 거의 모든 종류의 조직을 진단·평가해온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급 강사로도 유명하다. 특히 신작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21세기북스, 9쇄 돌파)는 각종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교수의 《두줄칼럼》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조직문화, 혁신 등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 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초미니칼럼(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독창적인 언어 플랫폼이다.

내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기, ‘마음챙김’

찬 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하는
추운 겨울, 12월이다.
한 해의 마무리하는 달에,
그동안 바쁘게 지내온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마음챙김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만큼, 꼭 심리상담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챙김명상’에 대해서 접해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명상이라고 하니 종교적 색채가 떠올라 편하게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고, 도인이 도를 닦듯이 집중을 해야 할 것만 같아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다. ‘명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마음챙김’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마음챙김’이 보다 수월하게 느껴질 것이다.

마음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마음 있는 그대로’

한국어로는 ‘마음챙김’이라 번역되는 ‘Mindfulness’의 심리학적 개념은 ‘지금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개념을 ‘mind-full(마음이 가득 찬)’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mind-full’한 상태라면, 마음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과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찬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mind-ful-ness(마음챙김)’는 어떤 상태일

까? 앞서 언급했듯 지금 이 순간에 내 몸과 마음이 겪고 있는 체험에 주의를 주는 것인데,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고 느끼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여행하는 동반자, ‘감정’

저마다 자신만의 감정 조절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 일이나 다른 취미에 몰두함으로써 힘든 감정으로부터 회피하는 것 등이 흔히들 하는 감정 조절 방법이다. 혹은 안 좋은 감정을 느꼈다는 자체에 안절부절못하며 과음, 폭식, 무절제한 쇼핑 등 대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법들은 단기적으로는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가 있기에, 사람들은 더더욱 불편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한다.

여기에는 '불편한 감정은 안 좋은 것'이라는 가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감정 조절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불편한 감정은 좋지 않다'는 가정은 여전히 있다. 결국 지금은 평안한 상태여도, 언젠가 느낄 불편한 감정을 경험할까 두려워하거나 피하고자 움츠러들게 된다. 두려움, 걱정, 시기, 초조함에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감정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잠깐 중단하고 나의 손님처럼 환영해보자.

쉽게 할 수 있는 마음챙김명상법

지금 내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하는 것이 마음챙김이라면, 어떻게 마음챙김을 할 수 있을까? 마음챙김명상이라고 해서 굳이 눈을 감을 필요는 없다. 주의를 둘러보며 시각을 활용해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생중계해보자. "지금 사무실이 보이네. 저기 노트북 옆에는 커피가 있고, 커피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 물통도 보이는구나"처럼 하면 된다.

그 다음은 호흡, 촉각, 후각으로 차례로 주의를 기울여 지금 감각을 느끼고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자. 지금 내 호흡은 좀 빠른 편인가? 지금 내 몸에 닿은 옷감은 부드러운가? 공기의 온도는 어떤가? 등을 느껴보자. 중요한 것은 '좋다/싫다', '옳다/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말 싫어하는 옆 사람의 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는 꼬릿꼬릿한 냄새를 맡고 있구나'라고 비판단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 때 또한 같은 방법으로 마음챙김을 해보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드는 생각에 '-라고 생각한다', '-라고 느낀다'라고 덧붙이면 된다. "아, 오늘은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해본다. 마음챙김명상을 하는데 1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시간은 상관없다. 일단 해보며 어떤 느낌인지 확인을 해보자.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맞나'는 생각이 들면 '잠깐 다른 생각을 했네'라고 생각하고 다시 주의를 돌리면 된다. 엄청나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숨을 쉬는 정도로만 집중하며 지금의 감각과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명상의 핵심이다.

마음챙김명상의 효과는 바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습관화시킬 수 있다면 일상에 분명한 의미를 주는 활동이다. 바쁜 일상에 가볍게 마음챙김명상을 시도해보며 연말의 분주함을 정돈해보는 것은 어떨까?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에서 상담, 위기 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정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삼성KPMG, WCD Korea와 손잡고 'WCD 사외이사 교육과정' 론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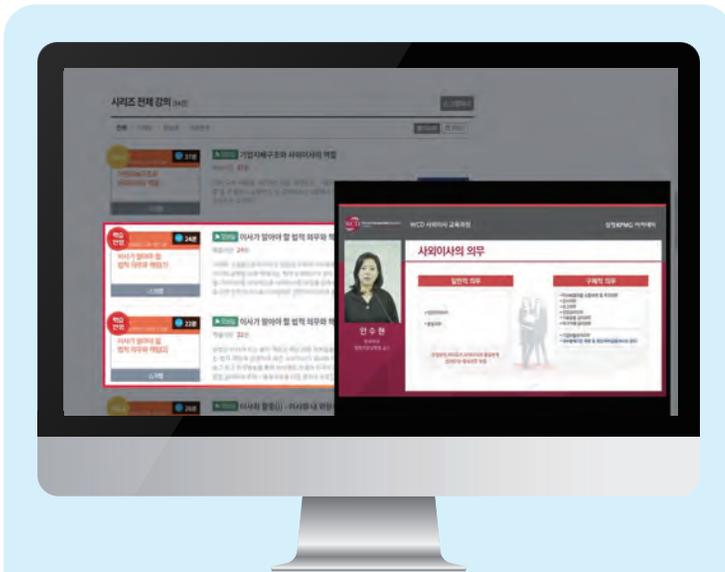
이복실 WCD Korea 회장(좌)과 삼성KPMG 김교태 회장(우)이 사외이사 양성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삼성KPMG가 세계여성이사협회(WCD Korea)와 손잡고, 온라인 지식 플랫폼 '삼성KPMG 아카데미'에 'WCD 사외이사 교육과정'을 론칭했다. 삼성KPMG와 WCD Korea는 사외이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인 'WCD 사외이사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했다.

본 교육과정에 삼성KPMG 전문가들과 고려대 김우찬 교수, 성신여대 성효용 교수, 한국외대 안수현 교수, 삼성바이오로직스 김유니스 이사, 국민대 이은형 교수 등이 주요 강사로 나서, 이사회가 알아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 및 이사회 주요 활동, 재무회계, Compliance, ESG 등 포괄적 주제에 대한 강연을 포함했다. 아울러, 김앤장법률사무소 권숙교 고문, 명지대 정다미 교수 등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사외이사들의 경험과 사외이사 평가에 대한 새로운 동향도 공유한다.

한편, 'WCD 사외이사 교육과정'은 삼성KPMG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삼성KPMG 아카데미(<http://www.kpmgacademy.co.kr/>)'를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Contact: 박혜경 이사 hyekyungpark@kr.kpmg.com



1 WCD 사외이사 교육과정 소개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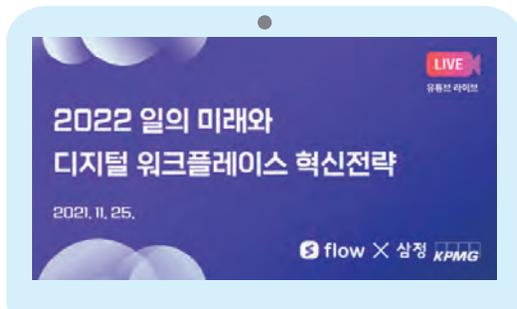
2 삼성KPMG 아카데미 홈페이지



3 삼성KPMG 아카데미 모바일 APP



‘2022년 일의 미래와 디지털워크플레이스 혁신 전략’ 세미나 개최



삼성KPMG는 지난 11월 25일 협업툴 플로우와 함께 ‘2022년 일의 미래와 디지털워크플레이스 혁신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됐으며, 다가오는 2022년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디지털워크플레이스 혁신 전략 비전 제시와 함께 한국형 기업의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하우를 제공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성KPMG의 디지털 전환 전문 컨설턴트 이준기 상무가 발표를 진행했다.

*Contact: 이준기 상무 jlee199@kr.kpmg.com

‘제8회 콘텐츠 산업 웨비나’ 열려



지난 11월 25일에는 게임 및 미디어, 플랫폼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제8회 콘텐츠 산업 웨비나’가 개최됐다. 웨비나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문중 애널리스트의 ‘콘텐츠 산업 주요 트렌드 및 전략’ 발표에 이어, 삼성KPMG 강승미 상무와 홍하진 상무가 각각 ‘콘텐츠 산업 관련 감리 동향 및 최근 회계 이슈’와 ‘콘텐츠 산업 관련 최근 세무 이슈’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삼성KPMG 문상원 상무가 ‘콘텐츠 산업 ESG 전략’에 대해 안내했다.

*Contact: 강승미 상무 seungmikang@kr.kpmg.com

‘2021년 BIG3 의료기기 분야 성장 지원 세미나’ 진행



삼성KPMG는 지난 11월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에서 ‘2021년 BIG3 의료기기 분야 성장 지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혁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 BIG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중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기기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 및 재무적투자자(FI)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산업 트렌드와 전략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계·세무 부문 주요 이슈 및 해법을 제시했다.

*Contact: 박경수 상무 kyungsoopark@kr.kpmg.com

Samjong News

2021년 KNOW(KPMG Network of Women) 하반기 정기모임 가져



삼정KPMG는 지난 11월 19일, KNOW(KPMG Network of Women) 하반기 정기모임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정기모임에서는 최인아 책방 대표인 최인아 대표가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KNOW는 삼정KPMG 여성 임직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내 기구이다.

삼정KPMG-삼성웰스토리, 골프산업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 위한 MOU 체결

삼정KPMG가 지난 11월 15일 경기 분당에 위치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서 골프산업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삼정KPMG의 골프산업 노하우와 네트워크, 삼성웰스토리의 골프장 운영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상호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삼정KPMG는 다년간 골프산업에서 쌓은 전문성과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개선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하고, 골프장 인수 및 개발 자문 네트워크를 공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사랑나눔

추운 겨울에도, 이웃 위한 따뜻한 사랑 나눔 이어가



삼정KPMG는 임직원 및 가족 139명과 함께 '비대면 숲 만들기' 봉사를 진행했다. 임직원들이 키운 총 150개의 묘목은 내년 3월에 노을공원에 보내진 뒤 모판에서 2년 여를 보낸 후 공원에 식재된다.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기부하는 '곡물 온열팩 만들기'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임직원 및 가족 88명은 곡물 온열팩의 겉싸개를 프랑스 자수로 꾸며 총 100개의 온열팩을 완성해 이웃에 있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11월에는 코로나19와 동절기로 어려움을 겪을 이웃들과 온기를 나누기 위해 '김장나눔 후원' 봉사도 진행했다. 삼정KPMG의 후원으로 세대당 10kg씩, 400세대 총 4,0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관내 적십자 희망풍차 결연세대에 전했다.

‘ACI 저널 19호’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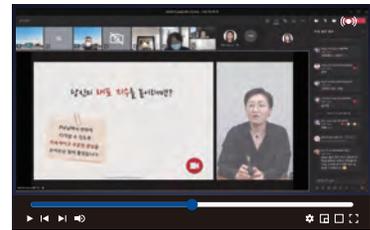


삼성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가 글로벌 기업 감사위원회 운영 사례를 소개한 ‘감사위원회 저널 19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제너럴 일렉트릭(GE)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구성, 회의, 보수 등의 현황을 국내 주요 기업과 비교 분석했다. 이외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기업의 감사위원회 활동을 점검하고 2022년 외부감사인 선임을 앞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절차에 대해 다뤘다.

*Contact: 강한우 이사 hwanwookang@kr.kpmg.com

PM(Performance Manager) 위한 소통 교육 나서

삼성KPMG는 PM 역할을 맡은 임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PM 역할을 위한 코칭 대화 스킬 교육



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HSG 휴먼솔루션그룹 동기과학연구소 강소엽 소장이 강사로 나서 코칭 대화의 가치를 높이는 성공적인 코칭 대화 프로세스를 안내했다. 교육생들은 이번 강연을 통해 코칭 대화의 핵심을 알 수 있었고 실제적인 사례 코칭으로 멘티와의 대화가 기다려진다면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INTRODUCE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Deal Advisory7본부 김정태 상무 영입

삼성KPMG가 2021년 11월 1일자로 Deal Advisory7본부에 김정태 상무를 영입했다.

김정태 상무는 M&A 자문과 지배구조 개편, 신사업 전략 수립 등 다양한 경영 자문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정기관 대응과 소송 자문 등의 업무 경험을 쌓아왔다. 그동안 쌓아온 다양한 자문 업무 경험과 노하우로 향후 Deal Advisory7본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태 상무는 “국내 최고의 M&A 자문사로 성장한 삼성KPMG Deal Advisory7본부로 8여 년 만에 복귀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M&A 시장의 트렌드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자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삼성KPMG Vision 2025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사 소감을 전했다.



김정태 상무 (Deal Advisory7본부)

경력

-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무자문팀 (2014~2021년)
- 삼정회계법인 Corporate Finance본부 (2010~2014년)
- 삼일회계법인 Assurance 본부 (2005~2006년, 2008~2010년)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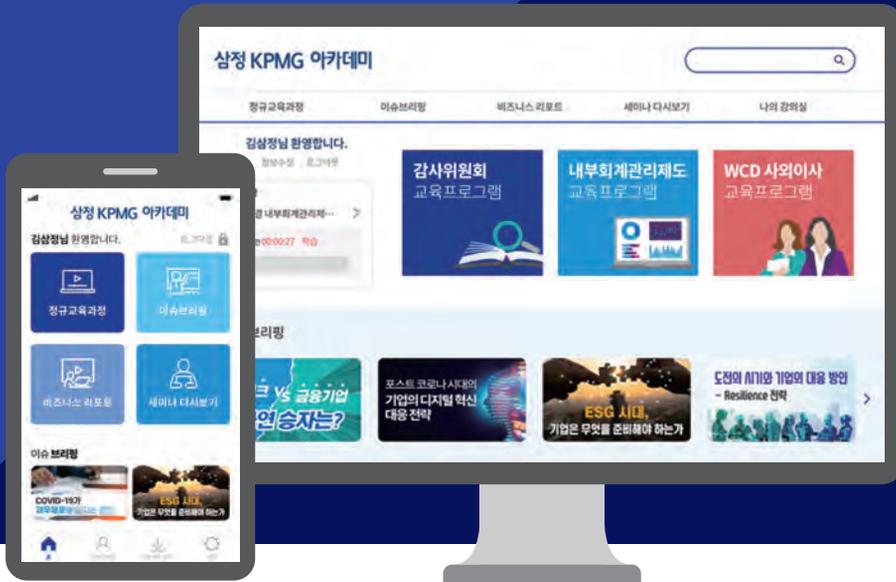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